미래 성장 해법 찾아 세계 석학·유엔도 '진주'에… 포럼 현장서 '수출 잭팟'도

경남 진주시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성료

김준호 기자 입력 2026.10.28. 00:30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이 18~20일까지 경남 진주시 경남이스포츠상설경기장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UN경제사회이사회' '글로벌 4대 기업' '우주·항공·방산' 세션에서 글로벌 산업 과제를 논의하고, 수출 공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진주시 제공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인공지능(AI)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 속에서 미래 성장의 열쇠를 '기업가정신'에서 찾는 논의의 장이 경남 진주에서 열렸다.

진주시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열린 '2026 진주 K기업가정신 국제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진주 K기업가정신재단과 국제포럼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유엔 전·현직 고위 인사와 글로벌 기업 관계자, 국내외 석학, 청년·대학생 등 1000여 명이 집결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글로벌 K컨벤션' 지역 시그니처 국제회의 선정 후 첫 포럼으로, 학술적 논의의 깊이를 더하고 청년 참여와 기업 간 실질적 사업 성과를 확대하며 참여형 국제회의로서의 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글로벌 기업부터 유엔까지 한자리에…미래 성장 해법 모색

19일 열린 본행사에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글로벌 4대 기업' '우주항공·방산' 세션을 통해 글로벌 산업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경상국립대 경남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우주항공·방산 세션'에서 미국 방산·기술 기업 안두릴의 존 김 한국 대표는 시스템 틀 자체를 바꾸는 도전 정신을 역설했다. 그는 "정부 발주를 기다리기보다 제조 기업과 소프트웨어 기업이 손잡고 6개월 안에 시제품을 만들어 군에 직접 시연하자"고 제안했다. 안두릴은 2017년 엔지니어 5명으로 출발해 9년 만에 직원 8000명, 기업가치 약 81조원의 글로벌 방산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진주에서 한국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을 갖춘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주를 포함한 경남은 2024년 기준 방산 매출액이 14조3324억원으로 국내 전체(28조7530억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K방산의 메카다.

국내 방산 리더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신익현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인재 판단 기준인 '신언서판(身言書判)'을 기업에 빗대며 "실제 AI를 적용하려 할 때 그 데이터가 정말 쓸 만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 진주에 기반을 둔 항공 전문기업 '㈜ANH스트럭쳐'가 지난 19일 진주 경남이스포츠경기장에서 열린 '진주 K-K기업가정신 국제포럼' 행사에서 영국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항공기 좌석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열린 '연사와의 대담' 모습.

'글로벌 4대 기업 세션'에서는 AI 전환(AX)과 협력 전략이 공유됐다. 삼성은 실패를 용인하는 조직 문화와 외부 기술 협력을, LG는 제조 역량에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전략을 내세웠다. HS효성은 AI 인프라 확장에 필수적인 고기능 소재 분야에서 성장 기회를 찾겠다고 밝혔다.

'유엔 세션'에서는 오준 전 경제사회이사회 의장(제71대)이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잃을 수 있는 문제"라며 "모두를 포괄하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일 열린 '글로벌 기업가정신 세션'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안승권 연암공대 총장은 "AI는 공장과 물리적 작업뿐 아니라, 지식과 아이디어를 다루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며 "기술과 고객의 변화 속도가 빨라져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럴수록 사람이 얼마나 빨리 배우고 변화하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기업가정신 학장 라운드테이블'에서는 43국의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HCE)' 연구를 바탕으로, 기업 성과가 단순 GDP 증대를 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간의 존엄성,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번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포럼 현장서 '수출 잭팟'도…실질적 산업 협력

이번 포럼은 지식 교류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서 직접 협력 기회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진주 항공우주·복합 소재 기업 ANH스트럭처는 영국 전기수직이착륙기 개발사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좌

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차세대 기체의 조종사·승객용 좌석 설계와 인증, 양산까지 전 과정을 도맡는다.

'GS벤처스 투자상담회'를 비롯해 석학과 대학생이 소통한 '연사와의 대담', 청소년들이 영어로 발표하는 '기업가정신 청소년 스테이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무대도 대폭 확대됐다.

진주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포럼을 세계적 교류 플랫폼으로 키워갈 방침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이번 포럼은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 세계적 석학, 미래 세대가 한데 모여 사람 중심 K기업가정신의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 기업의 글로벌 협력 등 실질적 결실을 거둬 국제 포럼의 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허승조 진주 K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진주가 지닌 역사적·문화적 자산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 기업가정신을 널리 알리고, 진주 국제 포럼을 세계인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nglish(영문) 日本語(일문)



김준호 기자

구독+
구독수
299